

값진 세 마디

글 · 장세현 그림 · 안 마게트





모야모와 아누는 오랜만에 연극을 보러 왔어.
정말 오랜만에 누려 보는 문화생활이라, 모야모와 아누는 잔뜩 기대에 부풀었단다.
오늘의 작품은, 바로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

두 집안이 대대로
원수 사이이니
어떻게 우리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차라리…….

줄리엣!
당신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요!

로미오,
안 돼!

어어, 빛에
빨려 들어간다!



값진 세 마디

글 · 장세현 그림 · 안 마게트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는(은)

모야모, 아누와 함께 유럽의 영국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이반을 만나게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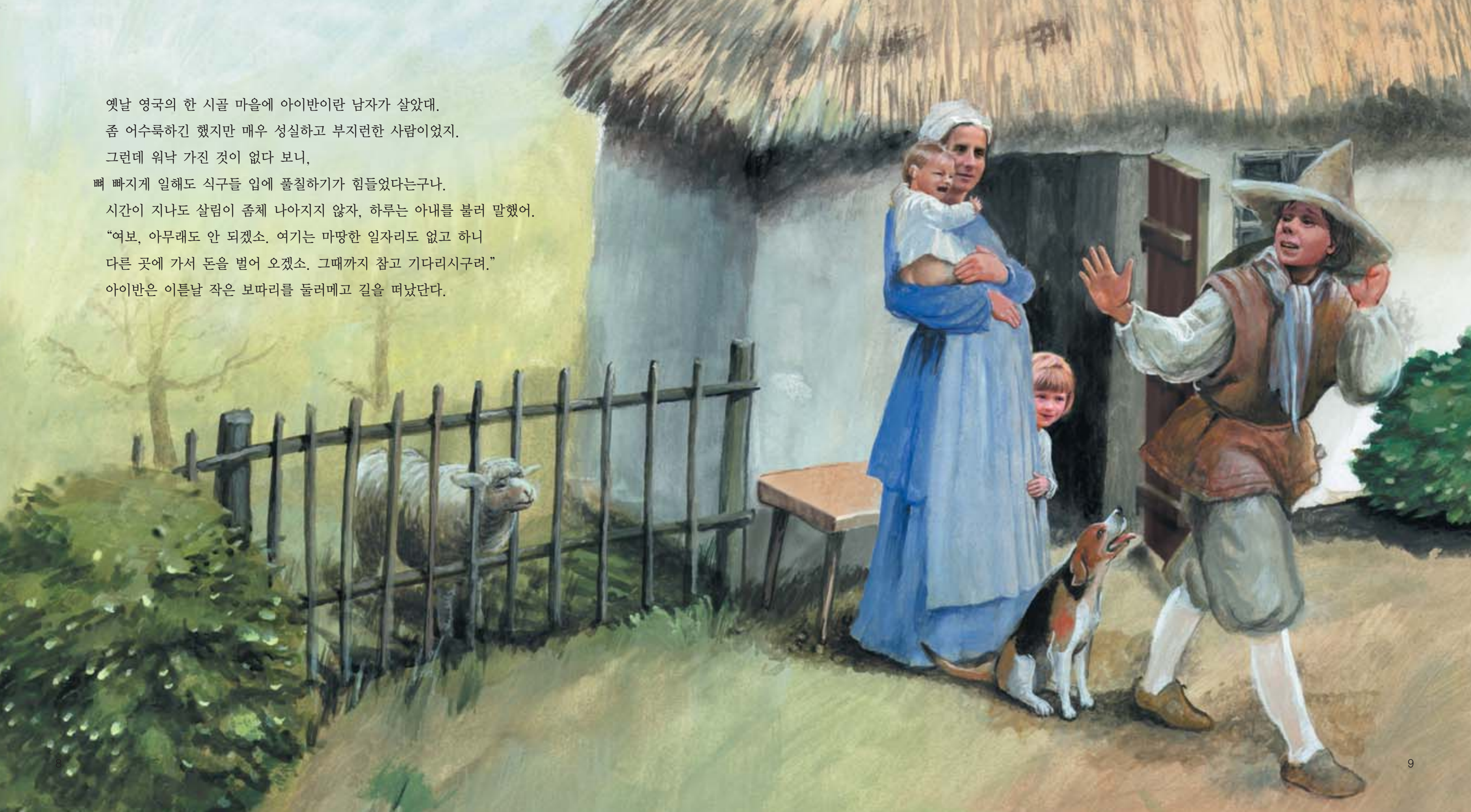
옛날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아이반이란 남자가 살았대.
좀 어수룩하긴 했지만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워낙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뼈 빠지게 일해도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었다는구나.

시간이 지나도 살림이 좀체 나아지지 않자, 하루는 아내를 불러 말했어.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소. 여기는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하니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벌어 오겠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구려.”

아이반은 이튿날 작은 보따리를 둘러메고 길을 떠났단다.





아이반은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꽤 번듯한 집이 눈에 띄는 거야.
“웁지, 저 집에 가서 일감이 없나 물어봐야겠다.”
아이반이 대문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주인이 나왔어.
“저는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젊은인데,
이 집에서 혹시 일꾼을 구하지 않나요?
농사일이든 뭐든 다 잘할 수 있으니 제발 시켜만 주세요.”
아이반은 주인에게 사정을 했지.
주인은 그의 허름한 차림새를 쓱 훑어보더니 대답했어.
“쫓쫓, 보아하니 사정이 매우 딱한 것 같은데 좋소이다.
마침 일꾼이 필요하던 참인데 잘됐구려.”

아이반이
이 집에서 일하게 되면
참 좋겠어.



성실함이야말로
아이반의 재산이야.

아이반은 이렇게 해서 그 집의 일꾼이 되었단다.
일 년 품삯으로 3파운드*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 말이야.
아이반은 타고난 성품대로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지.
주인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아이반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하곤 했단다.
‘흠, 성품이 곧고 우직한 사람이야. 하지만 지혜가 좀 부족하군.
돈도 돈이지만 세상을 사는 지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 친구를 위해 무얼 해 주면 좋을까?’

*파운드: 영국의 화폐 단위.

어느덧 일 년이 훌쩍 지났어.

아이반이 약속한 대로 품삯을 달라고 하자

주인은 미리 준비해 놓은 돈주머니를 내놓으며 말했지.

“자네가 일 년 동안 일한 품삯이네. 고작 3파운드일세.

하지만 만약 자네가 이 돈을 고스란히 내게 돌려준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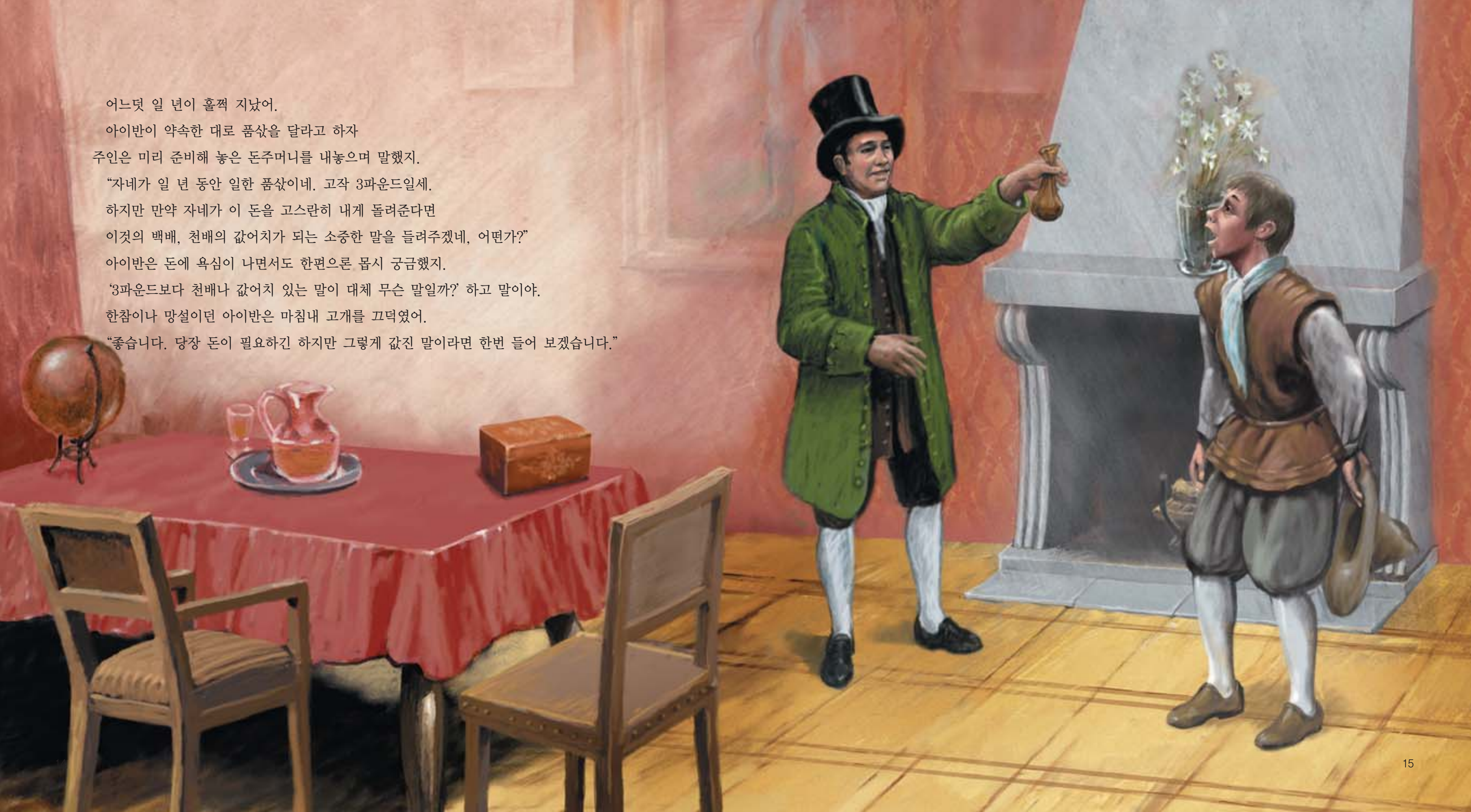
이것의 백배, 천배의 값어치가 되는 소중한 말을 들려주겠네, 어떤가?”

아이반은 돈에 욕심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몹시 궁금했지.

‘3파운드보다 천배나 값어치 있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말이야.

한참이나 망설이던 아이반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

“좋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값진 말이라면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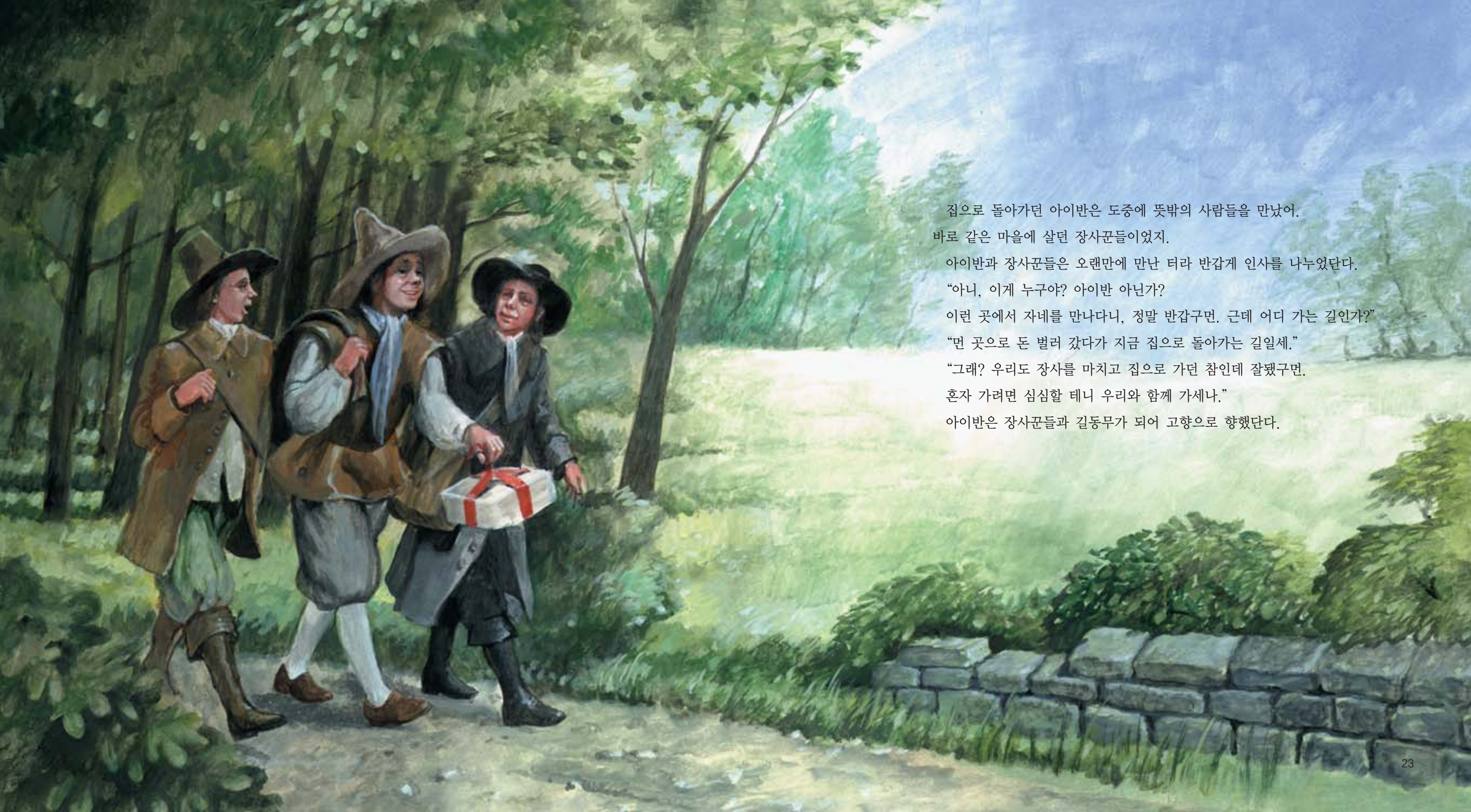


주인은 기쁜 낯으로 아이반에게 말했어.
“정말 잘 생각했네. 내가 자네에게 들려줄 말은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해서 옛길을 버리고 새 길로 가선 안 된다는 것이네.”
좀 싱겁기는 했지만, 일 년 치 품삷을 포기하고 들은 값비싼 말이었기에
아이반은 가슴속 깊이 새겨 두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일 년을 더 일하게 되었지.
그런데 아이반은 이번에도 약속한 일 년이 되자
품삷 대신 주인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말을 듣기로 했단다.
“앞으로 자네가 길을 가다가 절대 묵어서는 안 되는 집이 있네.
바로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는 집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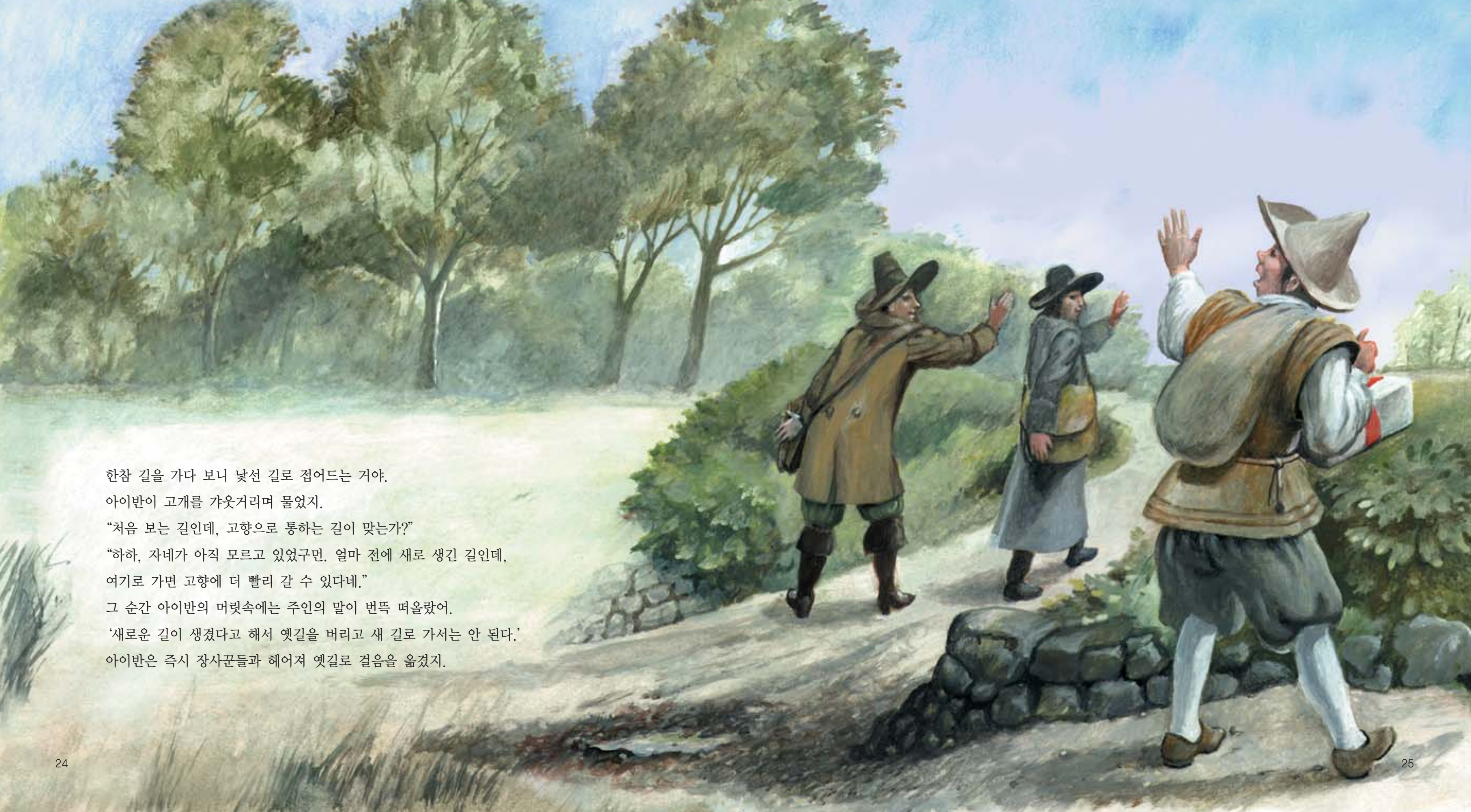
아이반은 또 일 년을 더 일하게 되었는데 삼 년째에도 역시 똑같았어.
“이번이 자네에게 들려줄 마지막 말이네.
어떤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네.”
그런데 이제 아이반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일할 마음이 없어졌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들은 건 좋았지만
삼 년 동안 품삯을 한 푼도 받지 못한 터라
주인한테 속은 것 같아 은근히 화가 났거든.
게다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가 몹시 보고 싶기도 했고.
“저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품삯도 못 받고
이게 벌써 몇 년째야.

주인은 그 말을 듣고 혼자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어.
“섭섭하지만 하는 수 없군. 그렇다면 하루만 기다려 주게. 자네에게 줄 선물이 있네.”
이튿날 주인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이반에게 커다란 케이크를 내밀며 말했어.
“이 케이크를 자네 아내에게 가져다주게.
단, 이걸 자네와 자네 아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잘라야 하네.
그 전에는 절대 자르지 말게.”
아이반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
주인은 멀리까지 아이반을 배웅하며 이별을 몹시 아쉬워했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신신당부를 했지.
“여보게,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꼭 명심하게!”



집으로 돌아가던 아이반은 도중에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어.
바로 같은 마을에 살던 장사꾼들이었지.
아이반과 장사꾼들은 오랜만에 만난 터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단다.
“아니, 이게 누구야? 아이반 아닌가?”
이런 곳에서 자네를 만나다니, 정말 반갑구먼. 근데 어디 가는 길인가?”
“먼 곳으로 돈 벌러 갔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세.”
“그래? 우리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참인데 잘됐구먼.
혼자 가려면 심심할 테니 우리와 함께 가세나.”
아이반은 장사꾼들과 길동무가 되어 고향으로 향했단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낯선 길로 접어드는 거야.

아이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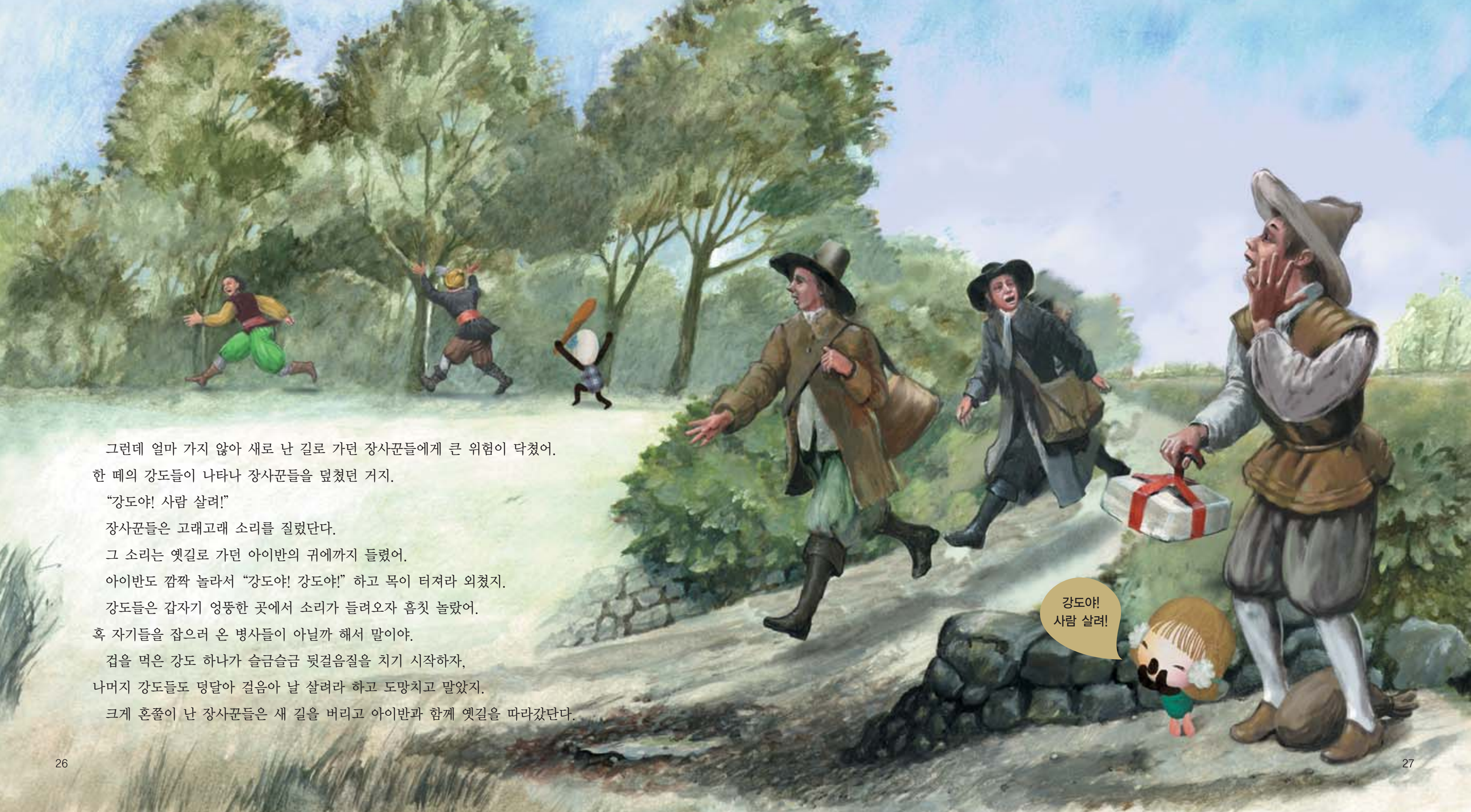
“처음 보는 길인데, 고향으로 통하는 길이 맞는가?”

“하하, 자네가 아직 모르고 있었구먼.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길인데,
여기로 가면 고향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네.”

그 순간 아이반의 머릿속에는 주인의 말이 번뜩 떠올랐어.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해서 옛길을 버리고 새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아이반은 즉시 장사꾼들과 헤어져 옛길로 걸음을 옮겼지.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새로 난 길로 가던 장사꾼들에게 큰 위험이 닥쳤어.
한 떼의 강도들이 나타나 장사꾼들을 덮쳤던 거지.
“강도야! 사람 살려!”
장사꾼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단다.
그 소리는 옛길로 가던 아이반의 귀에까지 들렸어.
아이반도 깜짝 놀라서 “강도야! 강도야!”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
강도들은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소리가 들려오자 흠칫 놀랐어.
혹 자기들을 잡으러 온 병사들이 아닐까 해서 말이야.
집을 먹은 강도 하나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자,
나머지 강도들도 덩달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고 말았지.
크게 혼쭐이 난 장사꾼들은 새 길을 버리고 아이반과 함께 옛길을 따라갔단다.

강도야!
사람 살려!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어 한 마을에 도착했어.
 장사꾼들이 아이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지.
 “정말 고마웠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런 뜻에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네.
 오늘 저녁은 우리와 함께 묵으면서 재미있게 놀아 보세나.”
 장사꾼들은 자기들이 늘 묵는 여인숙으로 아이반을 데려갔지.
 그런데 여인숙에서 주인 부부를 본 아이반은 깜짝 놀랐어.
 남편은 머리가 허영게 센 노인인데, 아내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였거든.
 ‘이런 집에선 절대로 묵지 말라고 했는데…….’

전에 주인이
말했던 대로야.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여자와 함께
사는 집 말이지?



아이반은 기분이 몹시 꺼림칙했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아.’

아이반이 주섬주섬 짐을 챙기자

장사꾼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지.

“아니, 자네 갑자기 어딜 가려고 그리나?”

“난 옆집으로 옮길 테니 그리 알게.”

“아니, 그게 무슨 섭섭한 말인가?

자네에게 대접하려고 일부러 이 집에 데려온 건데…….”

“자네들 마음은 고맙지만 아무튼 난 오늘 밤 옆집에서 묵겠네.”

장사꾼들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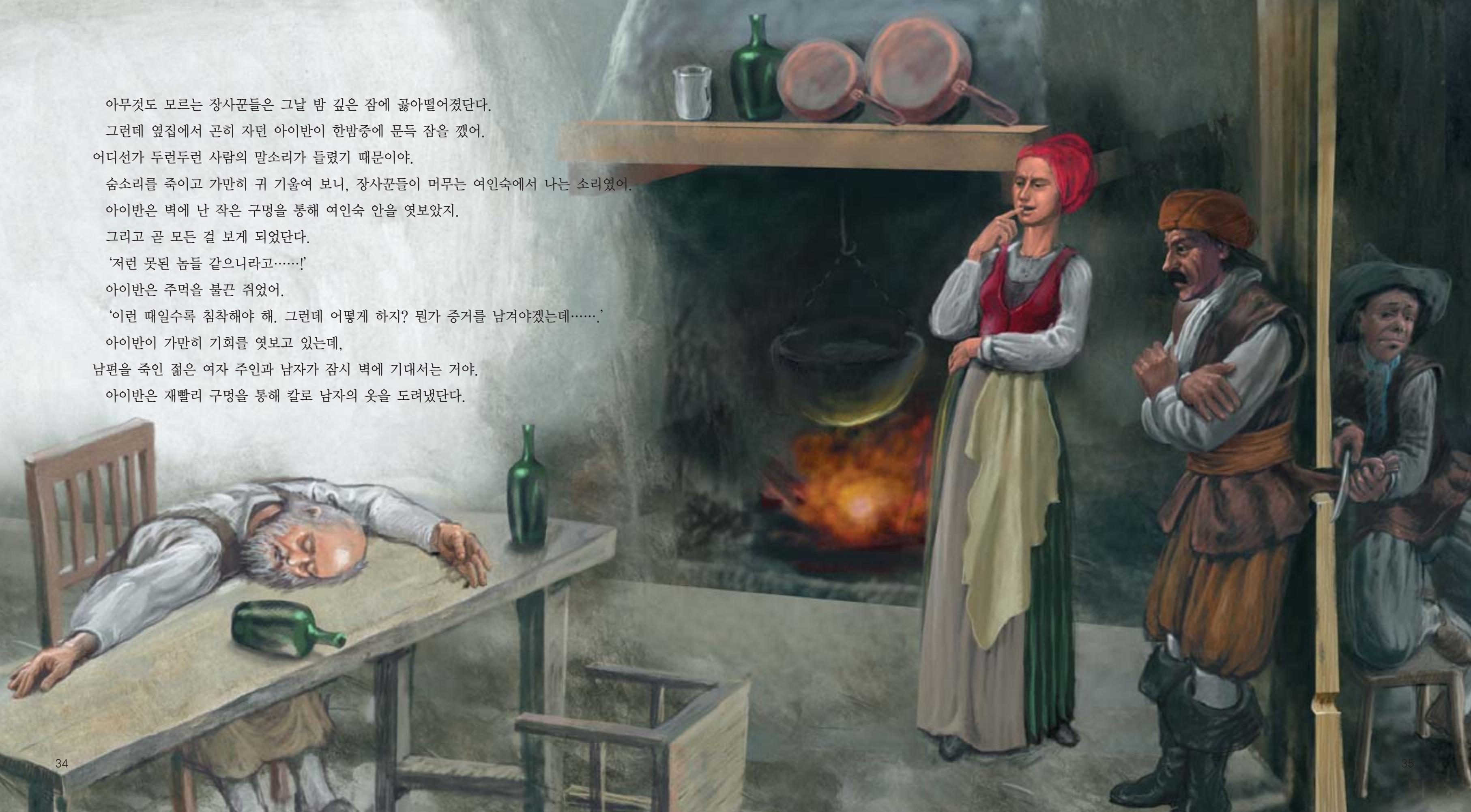
아이반은 여인숙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집으로 옮겨 갔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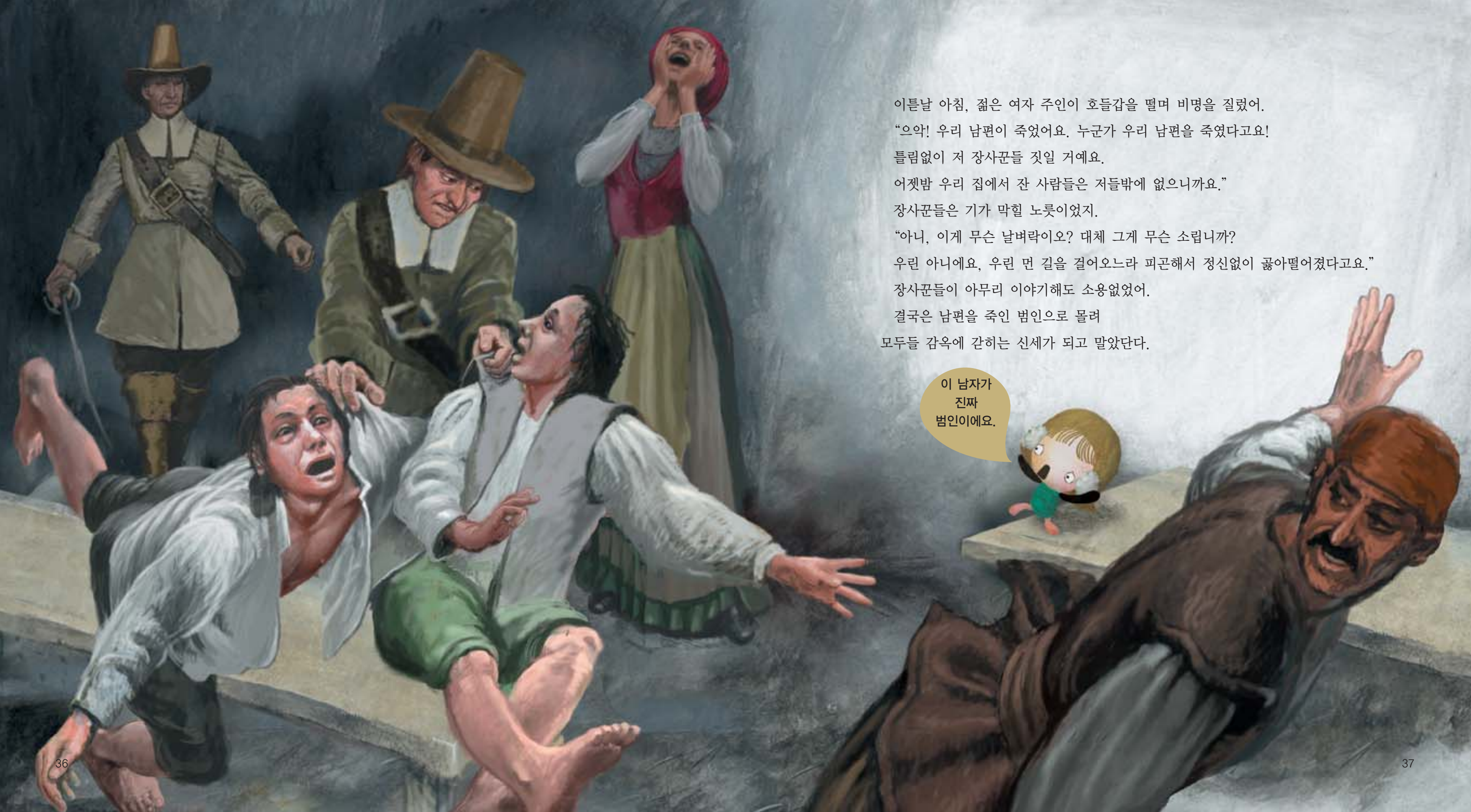
그런데 아이반이 그 여인숙을 떠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
그날 밤 젊은 여자 주인이 남몰래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거든.
대체 무슨 음모냐 하면, 그 여자 주인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던 남자와 짜고
늙은 남편을 죽인 뒤에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지.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남편을 없앤 다음
여인숙에 묵고 있던 손님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속셈이었던 거야.
천벌을 받을 만큼 잔인하고 못된 짓이었지.

*음모: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밈, 또는 그런 꾀.



아무것도 모르는 장사꾼들은 그날 밤 깊은 잠에 푹아떨어졌단다.
 그런데 옆집에서 곤히 자던 아이반이 한밤중에 문득 잠을 깼어.
 어디선가 두런두런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야.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장사꾼들이 머무는 여인숙에서 나는 소리였어.
 아이반은 벽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여인숙 안을 엿보았지.
 그리고 곧 모든 걸 보게 되었단다.
 ‘저런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아이반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그런데 어떻게 하지? 뭔가 증거를 남겨야겠는데…….’
 아이반이 가만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남편을 죽인 젊은 여자 주인과 남자가 잠시 벽에 기대서는 거야.
 아이반은 재빨리 구멍을 통해 칼로 남자의 옷을 도려냈단다.





이튿날 아침, 젊은 여자 주인이 호들갑을 떨며 비명을 질렀어.
“으악!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누군가 우리 남편을 죽였다고요!
틀림없이 저 장사꾼들 짓일 거예요.
어젯밤 우리 집에서 잔 사람들은 저들밖에 없으니깐요.”
장사꾼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린 아니예요, 우린 먼 길을 걸어오느라 피곤해서 정신없이 뒹아떨어졌다고요.”
장사꾼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었어.
결국은 남편을 죽인 범인으로 몰려
모두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단다.

이 남자가
진짜
범인이예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이반이 감옥으로 찾아갔어.
장사꾼들은 깊은 슬픔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지.
“에구,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이제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우린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고향에 돌아가거든 우리들 소식이나 전해 주게……. 흑흑!”
장사꾼들은 곧 죽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
“울지 말게. 난 자네들이 여인숙 주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아네.
자네들이 풀려나도록 내가 손을 써 볼 테니 너무 걱정 말게.”





아이반은 장사꾼들을 안심시킨 뒤에 재판관을 찾아가 말했어.
“장사꾼들을 풀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재판관은 아주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지.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허튼소리를 했다간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
아이반은 빙긋이 웃으며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지.
그리고 구멍을 통해 칼로 도려낸 옷 조각을 증거물로 내밀었다.

아이반 덕분에 장사꾼들은 곧 풀려날 수 있었어.

그 대신 진짜 범인들이 감옥에 갇혀 툭툭히 젓값을 치러야 했지.

장사꾼들은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 어쩔 줄 몰랐어.

“아이반,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모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을 거야.

자네가 우리를 살렸어.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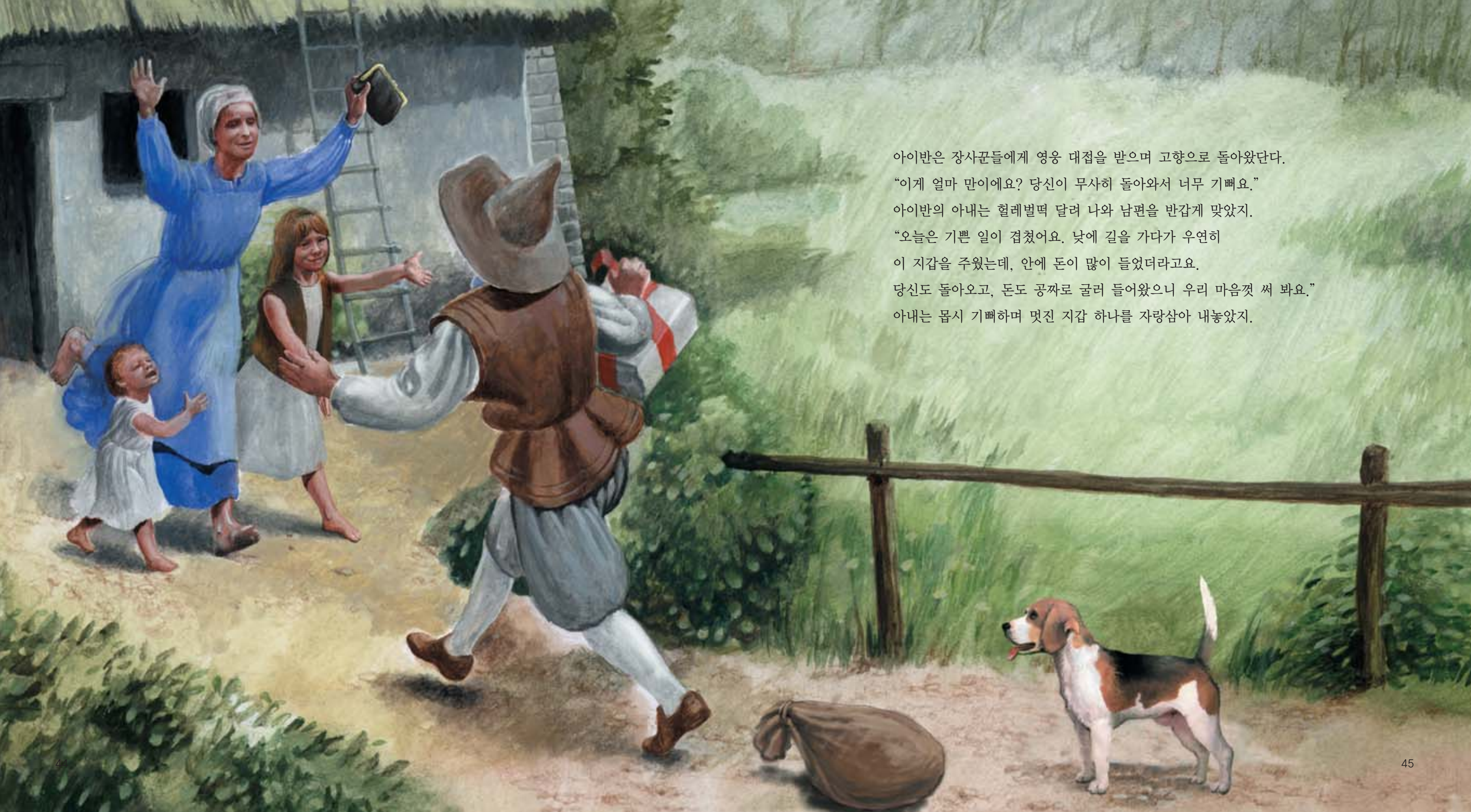
“암, 그렇고말고. 두 번씩이나 우리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

평생 그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걸세.”

장사꾼들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아이반에게 고마움을 전했어.

아이반이 없었다면
저 장사꾼들은 아직도
감옥에서 울고 있겠지?



아이반은 장사꾼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왔단다.

“이게 얼마 만이에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아이반의 아내는 혈레벌떡 달려 나와 남편을 반갑게 맞았지.

“오늘은 기쁜 일이 겹쳤어요. 낮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지갑을 주웠는데, 안에 돈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당신도 돌아오고, 돈도 공짜로 굴러 들어왔으니 우리 마음껏 써 봐요.”

아내는 몹시 기뻐하며 멋진 지갑 하나를 자랑삼아 내놓았지.

아이반도 지갑을 보자 탐이 났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어.
 ‘어떤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네.’
 아이반은 옛날 주인의 말을 되새기며 아내를 타일렀단다.
 “여보, 지갑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우리 마을 영주*님의 것 같소. 가서 돌려드리고 옵시다.
 혹 영주님의 것이 아니더라도 영주님께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소.”
 아내도 아이반의 말을 옳게 여기고 함께 영주님을 찾아갔지.
 그런데 성에 도착해 보니 마침 영주님이 밖에 나가고 없지 뭐야.
 “영주님이 돌아오시거든 이 지갑을 꼭 전해 드리오.”
 하는 수 없이 문지기에게 지갑을 맡기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

*영주: 나라에서 받은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

아이반은
부지런한 데다
정직하기까지
하다니까.

그로부터 며칠 후, 영주님이 길을 가다 목이 말라
우연히 아이반의 집에 들르게 되었어.

“고귀하신 영주님께서 누추한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에 돌려드린 지갑은 잘 받으셨는지요?”

아이반이 영주님께 물을 떠 주며 넌지시 물었어.

그러자 영주님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지.

“뭐? 내 지갑 말이냐? 그렇잖아도 지갑을 찾던 중인데,
어디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아이반은 아내가 지갑을 주워 집으로 가져온 일부터
문지기에게 맡기고 돌아온 사정까지 빠짐없이 말했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영주님은 몹시 분한 얼굴이었지.

“이런 껄썸한 문지기 같으니라고.

내 지갑을 중간에서 가로채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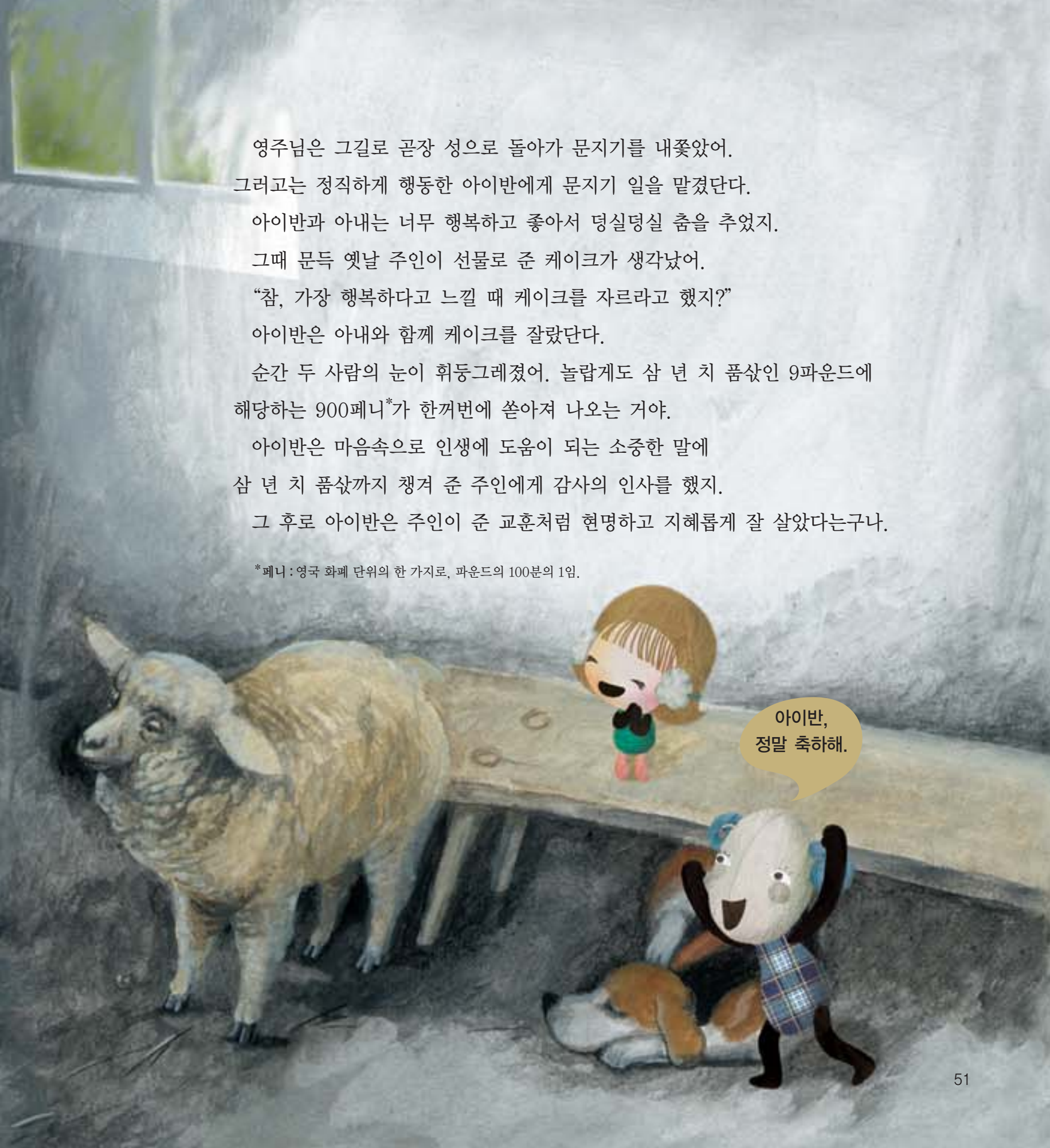


영주님은 그길로 곧장 성으로 돌아가 문지기를 내쫓았어.
그러고는 정직하게 행동한 아이반에게 문지기 일을 맡겼단다.
아이반과 아내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그때 문득 옛날 주인이 선물로 준 케이크가 생각났어.
“참,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케이크를 자르라고 했지?”
아이반은 아내와 함께 케이크를 잘랐단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놀랍게도 삼 년 치 품삯인 9파운드에
해당하는 900페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야.

아이반은 마음속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말에
삼 년 치 품삯까지 챙겨 준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지.
그 후로 아이반은 주인이 준 교훈처럼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살았다는구나.

*페니: 영국 화폐 단위의 한 가지로, 파운드의 100분의 1임.



글을 새로 쓴 장세현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어요. 시 〈거리에서 부르는 사랑 노래〉로 등단했고, 계간 〈시인과 사회〉 기획·편집 위원, 월간 〈사회평론 길〉 편집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현재 작가로 다양한 글을 쓰고 있어요. 작품으로는 〈벽화 속에 살아 있는 고구려 이야기〉, 〈우리 그림 진품명품〉, 〈어린이 백범 일지〉, 〈세상 모든 화가들의 그림 이야기〉 등이 있어요.

그림을 그린 안 마게트(Jan Maġet) 선생님은

체코의 프라하 근교에 살고 있어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여러 번 전시회를 가졌고, 현재 어린이들을 위한 책과 잡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린 책으로는 〈Czech History(체코의 역사)〉, 〈All about Baikal(바이칼 호에 관한 모든 것)〉, 〈Pinocchio(피노키오)〉 등이 있어요. 이 책의 그림은 불투명한 그림 물감인 템페라로 그리고 컴퓨터로 마무리했어요. 특히 사진을 합성하여 등장인물을 표현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잘 나타냈어요.



*수채화란 다양한 무늬의 종이, 잡지, 형겅 등을 이용한 콜라주 기법을 써서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표현하였어요. 수채화 기법과 다양한 무늬의 종이, 잡지, 형겅 등을 이용한 콜라주 기법을 써서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표현하였어요.

모야모와 아누를 그린 김혜민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지금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있어요. 그린 책으로는 〈종이 접기〉, 〈뽕날개가 돌아왔어요〉, 〈지붕 위의 의자〉, 〈안개〉 등 다수가 있어요. 모야모와 아누는 수채화 기법과 다양한 무늬의 종이, 잡지, 형겅 등을 이용한 콜라주 기법을 써서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표현하였어요.



값진 세 마디

발행처 | ㈜교원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258 대표전화 | 02-563-9090, 080-023-9091 등록번호 | 제300-1971-1호 발행인 | 이정자 편집 책임 | 박두이 글 | 장세현
그림 | 안 마게트 기획·편집 | 윤미영, 김보민, 지미라 편집 디자인 | 여인희, 김유정, 김소정, 문지연 제작 | 전승호, 김권식 재판 | 상현 프로세스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36-1 인쇄 | ㈜갑우문화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69 제본 | ㈜이우제책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7-1 인터넷 | <http://www.kyowon.co.kr> 1판 1쇄
인쇄일 | 2006년 10월 20일 1판 1쇄 발행일 | 2006년 10월 20일

©2006 Kyowon Co., Ltd.

〈모야모와 아누의 세계 옛이야기〉는 ㈜교원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내용이나 그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89-21-42635-3 ISBN 89-21-00073-9(세트)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Printed in Korea

⚠ 주의 |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본 교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고온 다습한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는 보관을 피해 주십시오.

〈모야모와 아누의 세계 옛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알찬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 9,000원